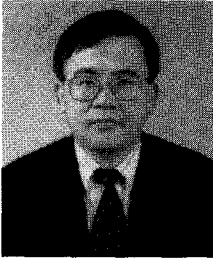


문화적 배경

이 글은 국제 환경문제의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Michael Reich 교수가 저술한 "Island of Dream"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박 석 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오늘날 일본의 환경문제는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적 배경에 1세기 동안의 근대화 과정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일본이 근대화의 시기에 취한 방향성과 정책 결정자들을 움직인 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산업자본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기술이 현대화되어 있으며 외양은 서구화되어 있지만, 지금도 과거로부터 뿌리깊이 박혀 있는 사회 조직 구조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 산업 사회는 여전히 봉건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정신과 사회적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내심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성장의 희생자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다.

일본 문화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일본의 지리적 조건을 들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면적에 불과한 일본의 주요 섬은 가장 가까운 대륙인 한국으로부터 15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고대에는 이 거리가 바다로 가로막혀 있다

는 것은 국제적 교류에 극복하기 힘든 장벽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자연히 문화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일본인들 스스로 그것을 "섬나라 근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리적 격리가 절대적인 장벽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일본은 영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스토리가 "문화적 침략"이라 부르는 다섯 번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외국의 사상과 생활 방식이 일본 사회 속으로 파고들었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 침략은 서기 6세기에 한국을 통해 중국의 한자와 불교 사상이 유입된 사건이었다. 비교적 교류가 없었던 9세기 중반까지 이 두 가지 문화적 유입은 일본의 독특한 처지에 적합하게 변형되어 흡수되었다. 12세기에 일본은 대륙과 활발하게 접촉하였다. 이로부터 2세기 동안 두 번째 침략의 시기를 겪었다.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교류는 날로 늘어나서 그 영역이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과 필리핀 제도까지로 넓어졌다. 유럽의 탐험가들이 전설처럼 전해오던 미지의 보물을 찾아 극동 아시아를 드나들던 그 무

목 차

1. 초기 환경문제
2. 문화적 배경
3. 산업사회의로의 진입
4. 전후 환경정책
5. 산업구조
6. 인구문제
7. 지구환경과 일본의 역할

럽 일본 상인들은 벌써 이 지역에서 해상무역을 하고 있었다.

1453년, 마카오로 가던 포르투갈의 작은 배 하나가 강풍에 밀려 항로를 잃고 일본 남쪽 해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은 곧 유리한 통상 관계를 수립했고, 영국과 네덜란드도 재빨리 그 뒤를 따랐다. 그 후 몇 십 년 동안 일본의 봉건 지도자들은 이것을 허용하였고 서구와 통상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국가를 통일하면서 일본의 위정자들은 서구의 식민지 정책이 일본에까지 확대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도쿠가와 정부는 외지에서 온 모든 '야만인' 들을 추방하고, 몇몇 선택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본인들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도쿠가와와의 과잉 통치가 일본을 200여 년 동안 고립된 폐쇄국가로 만들었다. 포르투갈 배의 좌초로 우연히 시작된 이 세 번째 침공은 제대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소수의 중국과 네덜란드 상인들은 큐슈의 남쪽 섬에 위치한 특별 지역에 한하여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 지역은 나가사키 항을 마주보는 곳으로 '서양으로의 창'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이 고립

의 시기 동안에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네덜란드와의 접촉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일본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몇몇 일본인들

5인방 체제는 사회적으로 올바른지 못한 행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시켜 마을 생활에서 집단 통제는 거의 없었다. 그룹 안에서의 조화로운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추방은 가장 엄한 처벌 방식이었다. 그만큼 그룹 내부의 조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다. 사회와 대립하는 행동은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았고 조직을 파괴하는 개인적인 야망은 상호간의 동의로 억제되었다.

은 이른바 "네덜란드 식"이라고 불리는 문물에 대단한 흥미를 보였다. 그것은 도쿠가와 시대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서구의 과학과 발전된 기술을 배우게 된 유일한 통로였다. 중앙 정부의 완강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봉건 영주 중 몇몇은 나가사키로 학생들을 보내 서구 문명, 특히 약학

과 무기 제조술을 익히게 했다. 네덜란드 식의 중요성을 처음 깨우친 이들 영주 몇몇은 큐슈에 살고 있었다. 공식적인 고립 정책이 끝나던 시기(1853-1854) 이전에 벌써 여러 곳에서 금속 제련, 주조, 무기 제조 기술 등과 같은 몇몇 전략 산업들이 정착되었다. 이 산업들은 비록 군사적 부분이었지만 여타 산업의 기초를 닦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훗날 메이지 시대에 와서는 큐슈 지역에서의 산업 발전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는 했지만 도쿠가와 시대의 중심지는 그곳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혼슈 섬이었다. 도쿠가와(1600-1867) 행정부는 관료주의를 통하여 후에 동경이 된 에도 지역에 권력을 집중시켰고, 엄격한 계급 사회 구조를 주요 수단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문화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중국식 유교주의에 기초한 이 사회 구조는 국민을 네 계급으로 나누었다. 가장 높은 계급은 군인이면서 정치가인 사무라이였다. 일차 생산자인 농민들이 그 아래 계급을 이루었고, 다음은 2차 생산자인 기능공들이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호한 상인계급이 가장 천대를 받았다. 상위 계급에 대한 의무와 충성과 순종을 강조하는 사회적 관습이 모든 계급에 엄격하게 적

용되었다. 상위 계급은 하위 계급의 무조건적인 봉사를 받는 대신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온정적 선행을 베풀었다. 권력에 대한 순종과 사회적 의무

수행은 엄격히 적용되었다. 이를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사적인 감정은 억제되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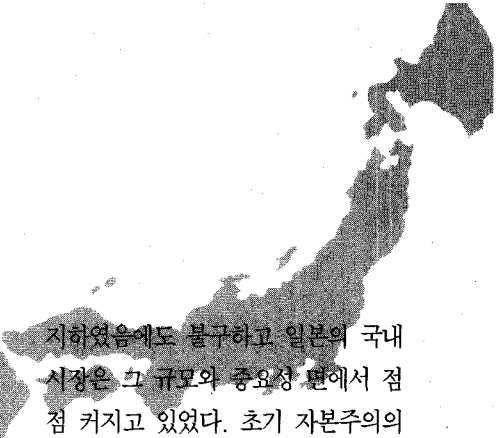
토지는 '다이묘(사무라이인 봉건 영주)' 260명에게 영지로 할당되어 있었다. 각 다이묘는 에도의 도쿠가와 정권에 의해 지명되었고, 그들은 자기 영지 내에서 자치 권력을 인정받았다. 다

이묘는 측근 사무라이 계급의 가신들로 순위가 매겨졌고 가장 순위가 높은 자는 지방과 중앙정책을 수행하는데 다른 다이묘를 자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외국과 교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내 상업도 무시되었던 도쿠가와 시대의 재원은 역시 농업에 그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는' 가혹한 세금 제도 때문에 거의 착취당하다시피했다. 다이묘들은 자기 영지의 생산성에 따라 그 위세가 달라졌고, 농지의 생산성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쌀 수확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1867년 도쿠가와 시대가 끝날 때까지, 총인구의 5~6%에 지나지 않던 사무라이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행사했다.

도쿠가와 사회는 군부일체 식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가족은 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였다. 가족은 외부적으로는 '가문'이나 '문벌'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급적 혈통 집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가문 내에서의 가족 대 가족의 관계는 부모-자식, 지배자-피지배자 관계의 가부장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엄격한 수직적 사회 구성은 일본 역사의 초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있으며 도쿠가와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었다. 여기에서 비롯된 가치관인 '무사도(사무라이 정신)'는 사무라이 계급뿐만 아니라 하층 계급에까지 널리 퍼졌다.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고, 지배자, 가족, 사회에 대한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는 가운데 무사도는 오늘날에도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고 있다.

훗날 메이지 시대에 와서는 큐슈 지역에서 산업 발전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는 했지만 도쿠가와 시대의 중심지는 그곳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혼슈 섬이었다. 도쿠가와(1600-1867) 행정부는 관료주의를 통하여 후에 동경이 된 에도 지역에 권력을 집중시켰고, 엄격한 계급 사회 구조를 주요 수단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문화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하층 계급에까지 번진 순종적인 사 무라이 정신과 자기를 억제하는 마음 가짐은 마을 생활을 특이한 집단 체 제로 조직화하였다. 그들은 대표를 통한 중재로 집단적 조화를 추구하고 자 했다. 시골에서는 집단적 책임 체 제가 생겨났다. 전통적으로 이 시스템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인 남자 대 표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른 바 '5인방'으로 불리던 그들은 자기 가문의 모든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다. 5인방 체제는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시켜 마을 생활에서 집단 통제는 거의 없었다. 그룹 안에서 조화로운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추방은 가장 엄한 처벌 방식이었다. 그만큼 그룹 내부의 조 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다. 사회와 대립하는 행동은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았고 조직을 파괴하는 개인적인 야망은 상호간의 동의로 억제되었다. 개인은 그룹을 위해 봉사할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 았고, 사회적 추방은 곧 정신적인 죽 음을 의미했다.

이렇게 도쿠가와 봉건 사회는 모든 이들에게 그룹 안에서의 위치를, 모 든 그룹에게는 전체적 사회 계급 속 에서의 위치를 부여했다. 개인의 행 동양식은 지배층의 정책과 일치 여부 에 따라 결정된 사회적 규칙에 의해

사소한 것까지 정해져 있었다. 결과 적으로 일본인들은 서구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적 특권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옳고 그른 기준이 달라 지는 상황적 윤리를 만들었다. 개인 의 행동 지침과 규칙은 그룹이 전체 적 틀 속에서 안정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유태인이 전통 적으로 원죄의 개념에 속박되어 있듯 이 일본인들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안 고 살았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본인들은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긍지를 느꼈다. 도쿠가와 시대의 엄격하고 정형화된 윤리 의식은 개인 들에게 의무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종과 도 덕적 원리를 희생하여 형식과 예의에 철저히 따르도록 하는 사고 방식을 불어넣었다.

세계와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도쿠 가와 시대에 일본의 내수 경제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17 세기 동안은 괄목할 정도였다. 경작 방법의 개선으로 농업 생산성은 크게 증가되었고, 부유한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비단 생산과 면방직, 그리고 정 종 주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많 은 영주들이 경쟁심 때문에 자기 영 지에 대해 폐쇄적인 경제 장벽을 유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내 시장은 그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초기 자본주의의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화폐와 금융 산업 또한 덩달아 융성했다. 일본 사회는 차츰 도시화되었고, 인구는 도시에서만 늘어났다. 18세기 중반부터 천재지변과 흉작, 영아 유기와 낙 태 등으로 일본의 인구는 그나마 2500만에서 3000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도쿠가와 정권의 정체성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늦추게 하였다.

지역 영주간의 힘의 균형과 엄격한 사회 규율에 의지한 도쿠가와 사회는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는 점 덕분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무렵 유럽은 아시아의 많은 나 라들을 식민지화하고 있었고, 그 점 이 일본인들에게 도쿠가와 정권의 폐 쇄적인 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 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서구 열강 의 개방 압력을 견디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내부의 안정을 강화한 미국 인들은 태평양 교래잡이와 모피 교역 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서히 극동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 로 일본과 통상하기를 원했고, 미국 정부는 자국 배의 북태평양 기지로 일본 항구를 사용하기를 원했다. 초

기의 미국 외무성은 도쿠가와 정권으로 하여금 외국과의 접촉을 막는 법령을 완화하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영국과 러시아가 같은 방법

1868년 봄, 젊은 메이지 국왕은 새 정부의 정관을 담은 칙서를 발표했다. 이 칙서를 통해 새로운 일본은 국가를 통합하고, 구시대의 폐습을 타파하리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한다는 국가적 결의를 선언함으로써 일본은 개방 정책을 택하게 되었고, 새 일본 정부는 근대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강력한 중앙 정부로서의 위상을 세웠다.

로 일본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미국은 무력을 동원해야만 일본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1853년 페리 함장은 정부의 명령으로 네척의 전투함 함대를 몰고 동경만으로 밀고 들어갔다. 일본은 결국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미국에 의해 한번 폐쇄 장벽이 무너지자 영국, 러시아, 프러시아,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서구 열강들도 비슷한 외교적 관계와 통상을 요구했다. 19세기 중반의 이 침략은 이미 약해져있었던 도쿠가와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켰다. 페리가 동경 만에 진주한 지 15년 후 사무라이 계급 중 불만 세력

들은 상징적인 권력으로서가 아닌 순수한 왕정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강력한 지역 영주들과 합세하여 도쿠가와 정권을 몰락시키고 군주 제도를 복귀시키는 데 성공했다. 서구 열강들이 사나운 짐승처럼 일본의 틈새만을 노려보고 있는데 이들 혁명 사무라이들은 극적인 정계 개편만이 외세의 침입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1868년 봄, 젊은 메이지 국왕은 새 정부의 정관을 담은 칙서를 발표했다. 이 칙서를 통해 새로운 일본은 국가를 통합하고, 구시대의 폐습을 타파하리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한다는 국가적 결의를 선언함으로써 일본은 개방 정책을 택하게 되었고, 새 일본 정부는 근대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강력한 중앙 정부로서의 위상을 세웠다. 이듬해 왕실은 다이묘로부터 세습 권력을 박탈했다. 그중 몇몇은 새 정부에 의해 본래의 영지에 관리로 임명되기도 했다. 민중들은 이제 봉건 영주들이 아닌 왕실과 메이지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왕실을 필두로 하여 일본 전체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재구성되었다.